

중국계 동남아인(華人) 주거에 관한 연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헌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1. 서론¹⁾

1-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도처의 건축역사에서 하나의 건축문화가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건축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하면서 융화하고 갈등하며 변화하여 또다른 문화를 이루어 내는 것을 건축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통적 사항이라 하겠다.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할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개 집단의 문화적 속성이 변화하기도 하고 지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문화적 특성이 접촉할 때는 한 집단의 기존 문화가 이질적 문화와 상호 유입 혼합하면서 진화한다.

다시 말해, 이질적 배경의 문화가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적응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시간을 통해 변치 않는 요소인 전통적 요소 파악의 주요사항이 되고 이러한 개개 문화의 원형적 요소는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원형을 보존하거나 두 문화의 혼재된 변형으로 지속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500년 이상의 오랜 이민사(移民史)를 지닌 동남아시아의 화인(華人)은²⁾ 해외 이민

과 정착기간 동안에 현지사회와 문화 그리고 서구 세력의 진출과 식민지 도시화 과정 등에 따라 많은 사회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독특한 화인문화(華人文化)를 지속시켜왔다.³⁾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변화의 과정에서 생존하고 소멸하며 혼합하는 문화적 실체로서 화인거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점포주택(shophouse)과⁴⁾

해 태어난 혼혈아도 있다. 탈 식민지화 이후,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중 거주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화인(華人), 화예(華裔), 화족(華族) 등으로 부름으로서, 중국국적 소지자들을 뜻하는 화교(華僑)나 중국인(中國人)과 구분하고 있다. 점차 화인(華人)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며 화인 사회 자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칙상 각 지역, 각 시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화인(華人)으로 통일하여 논술한다. 김성건, 「싱가포르 사회와 문화」(문경출판사, 1997), p.17과 山下清海, 「싱가포르의 華人社會」(東京:大明堂, 1988), pp.9-15.

3) 동남아시아의 화인은 전 인구의 6%(단, 싱가포르의 경우는 77%가 화인에 해당함)에 불과하다. 하지만 화인들이 도시에 밀집해 있어 실제의 수보다 더 많아 보인다. 또한 화인들은 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비하여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들 거의 대부분이 중국 남부해안의 광둥(廣東: Kwangtung)과 후저엔(福建, Fukien)에서 온 사람들이다. Mary F. Sommers Heidhues, 박은경 譯, 「동남아시아의 화교」(서울:형설출판사, 1993), pp.9-19.

4) 동남아시아에서 점포주택은 위층의 거주와 아래층의 상업을 조합시킨 복합기능을 가진 건축으로서 그 어원은 중국남부 호키엔(Hokkien: 중국남부 福建城 주민)의 방언 티암 쉘(tiam chu)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용어는 말레이시아 말라카(Malacca) 그리고 중국 남부지방 아모이(Amoy)에서 싱가포르(Singapore)로 이민 온 호키엔(Hokkien) 화인들이 사용한 용어로서 싱가포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솽하우스

1) 이 논문은 1999년도 두뇌한국21사업 핵심분야 사업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2)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는 15세기 이전부터 이미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된 이민 마을에는 이미 십 수대의 그들 자손이 있으며 현지의 민족과 통혼

로우하우스(rowhouse)는⁵⁾ 동남아시아 화인문화를 충분히 대표하는 건축이라 말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면서 높은 인구밀도와 경제활동의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⁶⁾

이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로의 사회적 인구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 주택부족, 고밀 개발, 주거환경 악화, 전통 생활방식 및 가족개념의 변화 등 주택의 양적 부족과 질적 수준의 저하, 전통문화와의 단절이라는 공통된 난제를 안고 있는 많은 아시아권 도시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권 도시들보다 앞선 시기에 급격한 도시화와 문화변동을 경험하면서 서도 현재까지 동남아시아 화인거리를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점포주택과 로우하우스의 정착 과정 및 화인이 계승·발전시켜온 건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동남아시아 화인 건축의 문화적 적응과 지역성을 이해하고자 한다.⁷⁾

그 변화양상 및 의미를 분석하는 사적(史的) 연구작업은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면서도 동남아시아의 학문적 연구가 많지 않은 우리 건축학계에 이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고 우리의 주거문화와 비교 연구하는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⁸⁾

(Shophouse: 우리나라말로는 점포주택으로 번역된다. 이하 점포주택으로 통일하여 기재키로 한다.)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Jon S. H. Lim, "The Origin of the Singapore Shophouse," *Architecture Journal*, 2, 1990, p.23.

5) 동남아시아 건축관련 단행본과 잡지들에서는 로우하우스(rowhouse)와 테라스하우스(terraced house)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유형을 분류, 정의할 때 테라스하우스는 주로 사면(斜面)에 건축되어서 계단의 형상을 띠고 있는 집합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에서 사면보다는 주로 평지에 축벽을 공유하면서 열을 지어 건설된 화인주거는 로우하우스(rowhouse)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테라스하우스(terraced house)에 관한 용어의 정착과 의미에 관해서는 S. Muthesius, "The Terraced House"(New Haven: Yale Univ. Press, 1982), p.14를 참고하기 바란다.

6) 중국이외의 나라에서 화인이 밀집 거주하는 곳을 일반적으로 차이나타운(chinatown)이라는 용어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용어는 항상 서구 여러 나라의 도시에 소수의 화인이 모여 거주하고 있는 특정 장소를 의미하고 때로는 나쁜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화인들은 차이나타운이라는 특정 지역에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한 화인이라는 용어를 인용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리를 화인 거리 또는 화인촌(華人村)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에 서술하는 용어는 화인거리로 통일하여 기재키로 한다.

7) 필자가 서술하는 문화적 적응의 개념은 문화간의 오래 접촉으로 한 문화의 일부가 변동한 제 3 문화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두 문화로 남아있는 상태를 뜻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로는 현존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화인주거가 18세기 중반에서 20세기초의 유럽식민지 전성시기에 대량으로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 기간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말레이 반도의 항구 도시들에 현재까지도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곳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화인주거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화인이 동남아시아 각 도시에 정착한 시기부터 시간대별로 비교하여 서술하는 통시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의 화인주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던 말레이시아 말라카(Malacca)와 페낭(Penang), 싱가포르(Singapore) 등의 동남아시아 항구도시들은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유럽열강의 침략대상이 되었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 쟁탈로 인한 잦은 전쟁과 도시구조의 변화, 화재와 같은 재해로 인해 초기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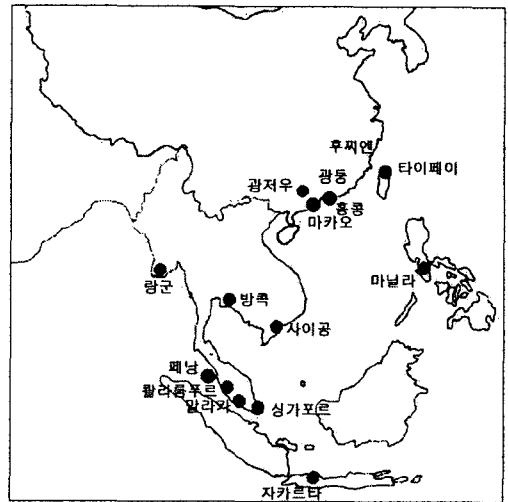


그림 1. 화인과 동남아시아 도시

8) 국내 동남아시아 건축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1998년에 출판된 김정동 교수의 「하늘아래 도시 땅위의 건축(아시아 편)」이 현장답사를 통한 많은 사진자료와 역사적 지식들을 제공해 줌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에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외 연구성과로는 일본에서 1987년에 출판된 加藤祐三 編, 「アジアの都市と建築」을 들 수 있는데, 동경대학 출신의 아시아 건축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건축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연구자들 중에서 동남아시아 도시·건축의 대표적 연구자는 일본인 泉田英雄, 대만인 黃俊銘 교수들 손꼽을 수 있겠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출신의 Johannes Widodo, 싱가포르인 Jon S. H. Lim, David G. Khol 등이 동남아시아 도시·건축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다.(연구성과는 참고문헌을 참고하기 바람.)

인주거 유형은 거의 현존하고 있지 않으며 서구인이 쓴 견문록이나 고지도 그리고 유럽인이 식민지 정부에 보고한 조사 보고서류 등의 자료로는 통시적 접근방법에 의한 초기 화인주거의 유형이나 자체의 진화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⁹⁾

기존 동남아시아 건축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또한 동남아시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변동의 복합적인 상황이 건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깊게 연관짓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¹⁰⁾

게다가 동남아시아 화인건축의 장식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남중국에서의 유입과 이후 유럽의 영향을 받은 절충주의 건축 정도로 결론 짓거나 유럽식 민지 시대라는 역사적 시간대의 특수성으로 유럽인의 방갈로 하우스와 더불어 식민지 건축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¹¹⁾

따라서 필자는 기존연구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동남아시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복합적인 상황과 연관하여 화인 주거의 정착을 설명하고, 공간 사용 방식 및 변형에 초점을 두어 화인건축의 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보다 큰 지역사회 문화의 범위 내에서 화인주거의 공간 구성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모국(母國)인 중국의 주거와 동남아시아의 화인주거를 사회 문화간 비교를 통해 유용성을 얻고자 공시적 접근 방법을 택하였다.¹²⁾

9) 필자는 1998년 12월 역사학회논문집에서 “말레이시아 화인거리의 형성과정과 도시주거에 관한 연구”를 게재한 바 있다. 서술의 관점은 화인주거의 자체 진화과정을 설명하기보다는 주로 말라카와 싱가포르 화인거리의 형성과 성장과정에 초점을 두어 도시맥락과 연관된 화인주거의 도시성에 관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급속한 도시화와 문화변동에 적응한 화인주거의 사회 문화적 적응을 건축적 특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0) 黄俊銘, “東南アジア及び日本における華人町の形成史に關する研究,” 工學博士學位論文, 東京大學, 1990와 Johannes Widodo, “The urban history of the southeast asian coastal cities,” 工學博士學位論文, 東京大學, 1995는 식민지 도시화 과정 속에서 화인의 역할과 식민지 정부의 정책과 같은 비-물리적 상황이 화인 건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화인의 문화가 건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11) 전자의 대표적 연구로는 David G. Khol, “Chinese Architecture in the Straits Settlements and Western Malay: Temples, Kongsi and Houses,” Kuala Lumpur :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1984가 있고 후자의 연구로는 泉田英雄, “16世紀以降海洋アジアに於ける都市住居形成史序説,” 碩士學位論文, 筑波大學, 1987을 들 수 있다.

12) 추가로 동남아시아 각지의 도시를 현장 답사함으로써 확인

2. 동남아시아의 도시형성과 화인의 역할

동남아시아 화인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무역과 상업활동이다. 무역과 상업의 경제적 기회가 그들을 남양(南洋)으로 오게 하였고 오늘날까지 그들은 주로 무역 또는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일정한 유형이 있다. 화인의 해외활동은 유럽인이 도래하기 이전부터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인은 동남아시아 각지의 무역항에 정착하고 있었다.¹³⁾

16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포르투갈을 선두로 네덜란드, 영국 등의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남아시아에 도래해 현지정권을 압박하여 각지의 무역항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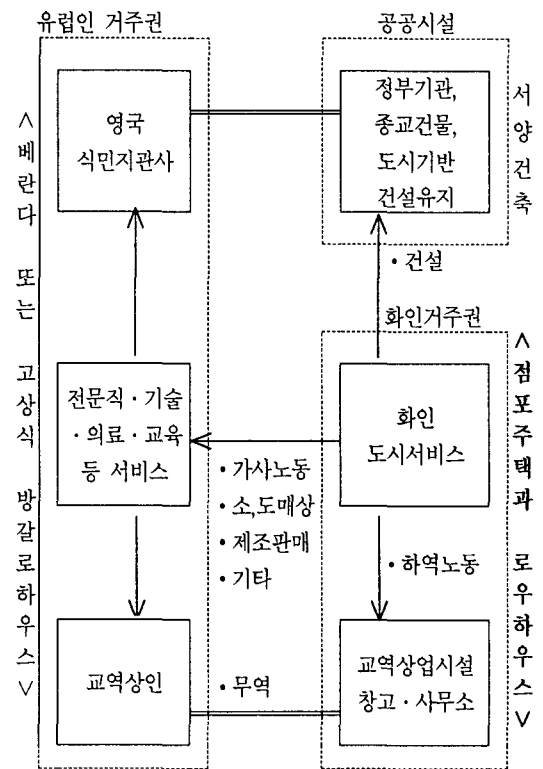


표 1. 화인의 역할과 주거유형

보충하였다.

13) 유럽인이 진출하기 이전인 15세기에 이미 남양(南洋 : 영어로는 Nanyang이며 남쪽해안을 뜻하는 말로서 대체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지칭한다.)에서는 서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해양경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말레이 반도의 말라카 고왕국은 인도와 중국을 묶는 중계무역항으로 발전하였다. Sarnia Hayes Hoyt, *Old Malacca*(Kuala Lumpur :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18-21.

| | 말라카 화인거리 | 싱가포르 화인거리 | 페낭 화인거리 | 칼라룸푸르 화인거리 |
|------------|---|-----------|---------|------------|
| 거리 전경 | | | | |
| 도시 구조 | | | | |
| 단위 세대 | | | | |
| 대표 사례의 평면도 | | | | |
| | 축소형 → 화인주거의 발전 → 화인주거의 확산 | | | |
| 범례 | 1.객실, 2.점포, 3.라운지, 4.창고, 5.사무실, 6. 천장, 7.조당, (7).제단, 8.거실 또는 식당, 9.침실, 10.다용도실, 11.부엌, 12.화장실 또는 욕실, 13.후정, 14.복도, 15서재 | | | |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순서로 식민지 지배를 받은 말라카(Malacca), 네덜란드와 영국 지배하의 자카르타(Jakarta), 영국의 지배하의 페낭(Penang), 싱가포르(Singapore), 칼라룸푸르(Kuala Lumpur) 등이 이러한 도시에 해당이 되며, 서구세력은 동남아시아 도시들을 식민지

도시 기능과 규칙에 맞는 도시형태로 구조화 하였다. 그들은 현지의 정치, 무역, 경제구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식민지 도시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 무역업, 건설업, 소매업, 제조업, 음식업 등과 같은 각종 도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

는 아시아인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동남아시아 무역항에 자리잡고 있었던 화인을 필요로 하였다.

화인은 유럽인들에 의해 요구된 각종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 중앙지역에 살수 있게 되었으며 서구세력의 식민지 경영은 화인의 남양(南洋) 이주 풍습을 직접적으로 촉진시켰다.¹⁴⁾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은 동인도 공사를 앞세워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로 향한 식민지 도시의 확장을 본격화하였으며, 1819년에는 인도와 중국을 잇는 중계무역의 거점으로 싱가포르를 건설하게 된다. 영국의 싱가포르 건설은 많은 노동자와 도시 서비스를 지탱하기 위해 많은 화인을 필요로 하였고

이를 계기로 중국 남부지방으로부터 화인의 대량 이민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화인의 해외이민증가는 종래의 동남아시아 각지의 화인거리를 확장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화인거리의 형성배경이 되었다.¹⁵⁾

화인들의 이민 경로는 중국남부지방의 광둥(廣東: Kwangtung)과 후저엔(福建, Fukien) 항구도시에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각 지역, 아메리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항구도시였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각국의 수도와 지방의 중요한 도시들은 항구 도시에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각 도시에 현존하고 있는 화인거리는 동남아시아 각 도시 형성과 성장의 시간적 패를 같이 하고 있다.¹⁶⁾

서구세력의 동남아시아 진출과 식민지 도시 건설에서의 도시 거주는 도시형성 이전부터 존재해 온 현지주민의 채집과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집락 거

주양식(居住樣式)과는 다른 상업과 산업에 근거한 거주양식이다. 화인들은 정해진 지역에 화인거리를 형성하였고 그들 대부분은 상업과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점포주택과 주거용의 로우하우스에 거주하였다. 결국, 이러한 거주양식은 동남아시아 각 도시 성립의 지표가 되며 그 대상인 점포주택과 로우하우스는 도시형 주거로서의 존재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¹⁷⁾

3. 화인주거의 정착

3-1. 말라카의 화인주거

15세기이전부터 동남아시아 말라야 반도의 말라카 고왕국은 항로상에서 인도와 중국을 묶는 중계무역항으로 가장 발전하였다. 각각의 범선(帆船)들이 말라카 해협에서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몬순풍(monsoon)을 기다리고 그곳에서 물건을 하역하였던 곳으로서 동아시아의 중국, 서아시아의 인도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온 산물(產物)의 최대 집산지였다.¹⁸⁾

유럽세력이 진출하기 이전인 15세기이전부터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말라카에는 이미 화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포르투갈시대(1511~1641)에는 포르투갈인들이 사는 성의 외곽지역에서 화인은 외국 상인, 자바인, 켈린인 그리고 말레인들과 민족별로 뚜렷한 구별 없이 섞여 사는 형태였다. 선박이 주운송 수단이었던 시기에 자바인과 켈린인이 강주변이나 해안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화인은 교역에 불편한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말라카의 복합민족사회에서 화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다른 민족들보다 높지 않았음을 예측할 수 있다.¹⁹⁾

14) 화인과 동남아시아와의 접촉은 아득히 먼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유럽인들이 동남아시아에 도래하기 전의 화인들은 긴 여행에 익숙하지 않고 종래의 정치와 종교상 등의 제한으로 대규모로 해외에 이주하는 일은 없었다. 그들은 유럽인이 동남아시아에 건너오면서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였고 유럽인의 식민지 도시에 자신들의 거리를 계속 만들었다. 黃俊銘, “東南アジア及び日本における華人町の形成史に関する研究”, 工學博士學位論文, (東京大學, 1990), p.2.

15) 동시에 종래 중국남부의 과다한 인구문제에 더해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 등의 혼란한 정국(政局), 개항에 따른 경제체제의 붕괴, 중국정부에 의한 화인의 해외 이주금지령의 해제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화인의 해외이민은 한층 활발해졌다.

16) 각 도시별 화인의 해외이민 경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Thomas Tsu-wee Tan, *Your Chinese roots*(Singapore : Heinen, 1986), pp.51-103을 참고하기 바란다.

17) 여기에서 중시할 만한 것은 도시화가 초래한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화인은 진취적인 자세를 갖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가는데 성공적이었던 반면에, 현지인 말레인들은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적인 사회적 형식과 직업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김성곤, 앞의 책, p.31.

18) 말라카는 고왕국 시대(1403~1511)이후, 16~19세기에 걸쳐 종교, 정치, 경제, 군사적 조건의 중요성으로 포르투갈 시대(1511~1641), 네덜란드 시대(1641~1795), 영국 시대(1824~1957) 동안에 유럽식민지 지배의 격전장이 되었다. 加藤祐三編, 『アジアの都市と建築』(東京: 鹿島出版會, 1987), pp.60-66.

19) 포르투갈시대의 말라카 화인거리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관해서는 이상현, “동남아시아 화인거리의 형성과정 및 도시·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8),

네덜란드 지배(1641~1795)초기에 화인은 포르투갈과의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말라카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그들의 경제력과 건축기술은 상당히 성장하였다.²⁰⁾ 네덜란드 지배기간 동안에 이전의 현지주민 거주지까지도 화인 거주지로 변하여 계속 확장되어 갔으며 직교하는 가로체계가 생겨났다.²¹⁾

부유하게 된 화인은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아탑 건물²²⁾ 대신에 기와와 벽돌조의 내구성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로우하우스(rowhouse)를 짓기 시작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로우하우스들은 18세기 중반 이후에 말라카 서부의 초기 화인거리인 Jalan Tun Tang Cheng Lock에 건설되었고 부유한 말라카 해협 태생의 화인들이²³⁾ 주거용으로 지은 건물이다.²⁴⁾ 대부분의 화인은 교역을 하는 상인이었으므로 화인주거에는 창고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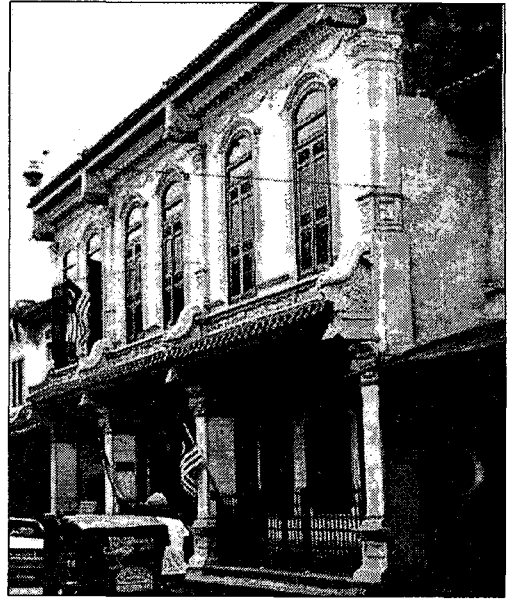


사진 1. 現 말라카의 로우하우스

pp.11~18을 참고하기 바란다.

20) 네덜란드령 시기의 말라카 초대 총독대리 보트(BaThasar Bort)는 1678년에 말라카의 현장 조사를 했다. 그 조사에 의하면 당시 말라카의 각 민족이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다. 720채의 말라카 전체 건물 중 벽돌 조적조가 137채, 아탑 건물은 583채이다. 당시 화인의 인구는 말라카의 총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852명이었으며, 81개의 벽돌 조적조 건물은 말라카 전체 벽돌 조적조 건물의 5분의 3에 해당되었다. 현지에서 생산되는 짚을 사용한 51채의 아탑 이음의 화인 건축물도 있었지만 이것은 전체 아탑 건축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M. J. Bremer trans, "Report of governor Balthasar Bort on Malacca, 1678," *Journal of the Malayan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5, 1927, pp. 41~43.

21) 네덜란드 시대에 말라카의 화인거리 형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현, 앞의 논문, pp.18~24를 참고하기 바란다.

22) 말레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목재와 짚으로 지은 건물을 말한다.

23) 바바상인(Baba) 또는 프라나칸(Peranakan)이라 불리는 이들은 말레이인과 결혼하여 수십 세대에 걸쳐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면서 현지사회에 적응하였다. 그들은 중국남부에서 대량의 화인이 유입되기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유럽인들과 무역거래를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

24) David G. Khol, *Chinese Architecture in the Straits Settlements and Western Malay: Temples, Kongsis and Houses*(Kuala Lumpur :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1984), p.73와 Khoo Joo Ee, *The Straits Chinese : A Cultural History*(Singapore : The Pepin Press, 1996), pp.139~140.

25) 초기의 로우하우스(rowhouse)는 후면이 말라카 해협의 강위로 돌출해 있었고 강을 따라 주거의 배면(背面)에 화물선이 짐을 내릴 수 있도록 말뚝으로 지지한 플랫폼이 해수면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해상 운송이 무역의 주요수단이었던 시기에, 선박은 만조에 플랫폼에서 짐을 싣고 내릴 수 있었다. 수상(水上)에 접하고 있는 이러한 로우하우스는 지금도 말라카 해변에

1750년경 말라카는 네덜란드 지배하에 최고로 번성한 시기였다. 말라카의 전 인구는 9635명이었으며 그 중에 화인은 2161명이었다.²⁶⁾ 이 당시 화인의 세력은 가장 번성했던 것 같다. 화인의 건물이나 관계시설들이 거리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있었고 화인은 거리 전체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화인거리의 범위는 거리 전체까지 펼쳐져 있었다.²⁷⁾

화인주거는 폭이 좁고 긴 대지 위에 건설되었으며 이웃과 하나의 벽을 공유하면서 화인거리를 구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화인거리의 도시구조는 네덜란드 지배하에서 파생된 것이다. 당시 식민지 정부가 책정한 화인거리의 거주세는 건축물이 면한 거리의 폭에 따라 책정되었기 때문에 부유한 화인은 가능한 폭이 좁은 대지에서 배면으로 수평 확장해나감으로서 가족생활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웃과 벽을 공유하면서 층의 중첩을 통한 집합화로 공간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길이 또한 5-6미터 길이가 유효하여 위층바닥과 지붕을 떠받치는 보로 사용되었다.

남아있다. Johannes Widodo, "The urban history of the Southeast Asian coastal cities," (工學博士學位論文, 東京大學, 1995), pp.86~87.

26) Victor Purcell, *The Chinese in Malaya*(London : Oxford Univ. Press, 1948), p.36.

27) Hoyt, Op. cit., p.60.

대표적인 말라카 로우하우스 규모는 전면의 폭이 5-6미터 정도이고 길이가 약 50~60미터에 해당하며 적갈색 기와로 마감한 막배 지붕으로 덮여 있고 약 3.6미터 이상의 높은 천정을 하고 있다.²⁸⁾ 가로에 면한 차양공간은 옆집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공간이 아니라 무더운 기후에 대처한 실용적인 공간이면서 전면의 입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로우하우스의 공간 구성은 하나의 축선상에 천정(air well 또는 天井)²⁹⁾에 의해 세 개 또는 네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며, 확대가족은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주거를 구성하는 주요 공간은 중국의 전통 주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당(ancestral hall 또는 祖堂)과 객실(sitting room 또는 客堂), 그리고 중정인 천정(air well 또는 天井)이다.

조당은 대가족 제도아래 중국의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구성요소이다. 이곳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행한다. 중국의 전통주거에서처럼 말라카의 로우하우스의 조당은 천정을 면하고 있다.

객실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장소이면서 남녀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수목이 있는 중정(中庭)은 전통 중국 주거의 근본적인 공간요소이다. 중국 전통주거의 중정은 로우하우스에서 작은 규모의 천정으로 축소되었다. 중앙의 천정은 조당이나 가족의 사적공간이 면할 수 있도록 건물의 중심에 있다. 기능적으로는 내부에 통풍을 원활하게 하며 빛을 제공하고 빗물을 모으는 곳이다. 천장의 바닥은 주변보다 한 단 낮게 되어있고 계절주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석판(石板)이나 타일로 포장 되어있으며 경계는 화강암으로 처리했다. 중국인의 관습에 따르면, 공기와 물은 부와 평화 그리고 행운의 상징이기도 하다.

말라카의 로우하우스는 주거의 성격이 강하나 상업지구의 가로에서는 상업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직주 겸용의 점포주택들이 차츰 확장하여 화인거리를 구성해 나갔다. 무역업을 주로 하며 오래 전부터 정착하여 부를 쌓은 해협 화인들은 대가족을 거느리

고 로우하우스에 거주할 수 있었지만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낮은 화인들은 상업지구에서 상업을 담당하면서 로우하우스보다 규모가 작은 직주 겸용의 점포주택에 거주하였다.³⁰⁾ 점포주택은 수평확장을 할 수 없는 한정된 대지 내에서 가로에 면한 로우하우스의 객실이나 창고에 해당하는 공간을 상업용의 점포로 변용할 필요가 있었다. 여전히 가족생활을 위한 거실 또는 식당은 칸막이 벽과 천정에 의해 점포와 분리되어 있고 위층은 주로 가족들을 위한 침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엌과 욕실은 주거의 가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점포주택의 선조격으로서 로우하우스는 식민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주어진 대지 내에 측벽 공유와 수직 적층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식민지 도시구조에 적응하였고 중국전통주거의 천정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공간구성 또한 계승해 나가고 있다.

4. 화인주거의 발전

4-1. 싱가포르의 화인주거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 동인도공사의 스탬포드 래플즈(Stamford Raffles)가 동남아시아에서 네덜란드의 무역 독점을 타파하고 중국,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 건설한 중계 무역의 거점이었다.³¹⁾

싱가포르 건설 당시,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여러 민족들이 싱가포르에 유입되었으며 특히, 말라카와 중국남부지방에서 많은 화인이 대거 이주하게 된다.³²⁾

건설 초기 싱가포르의 도시형을 만든 래플즈는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을 단행하는데, 의도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그 첫 번째는 민족과 용도

28) S Vlatseas, *A History of Malaysian Architecture*(Singapore : Longman Singapore Publishers, 1990), p.95.

29) 북경의 사합원 주택에서는 중정을 원자(院子)라고 하지만 중국남부지방의 전통주거에서는 천정(天井)이라 부른다. 말라카 로우하우스(rowhouse)는 중국남부지방의 천정과 같이 이중 또는 삼층 사이에 끼어 있는 형상을 한 우물형 중정이므로 이하 air well은 천정(天井)으로 통일하여 기재키로 한다.

30) Hoyt, Op. cit., p.29.

31)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에 걸쳐 말라카는 네덜란드와 영국 사이에서 몇 번이나 지배가 바뀌면서 점차 도시는 쇠퇴하고 있었다. 이후, 1824년 영국-네덜란드 협정에 따라 약 130년 동안 말라카를 지배하게 되었다.

32) 래플즈는 싱가포르의 건설됨에 따라 그 이전까지 자바섬의 바타비아(Batavia : 현재의 자카르타)를 무역의 중심지로 보고 있던 화인 상인 및 그 외의 무역 상인을 흡수하여 네덜란드의 독점무역 조직을 붕괴시키고 화인 상인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활동을 강화하려고 했다. 밀턴 W. 마이어, 『동남아시아 입문』, 김기택 역,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1994), pp.74~76와 C. M. Turnbull, *A History of Singapore 1819-1988* (Singapore :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13.

에 따라 명확히 토지를 구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화인거리의 건축규제이다.³³⁾

여기에서 래플즈가 화인에게 할당한 화인 거주구는 교역 및 경제활동에 가장 편리한 남쪽 해안과 강주변의 장소로 지정하고 있다.³⁴⁾ 이는 래플즈가 신식민지 도시 건설을 위해 아시아계 주민으로는 화인을 필요로 하였으며, 화인거리는 처음부터 직교하는 가로배치, 불연화(不燃化)대책으로 기와와 벽돌의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과 세장형 획지(劃地)에 개방식 연속 베란다가 붙은 건물들이 늘어선 것으로 되어 있었다.³⁵⁾(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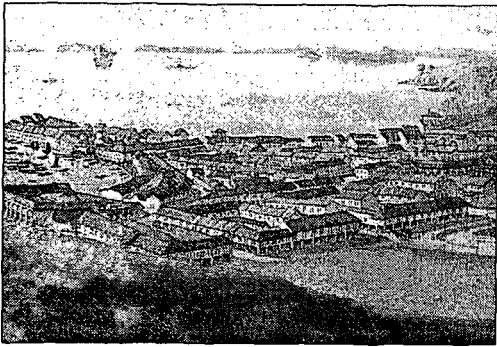


그림 2. 1847년 싱가포르 전경 (자료: Singapore National Museum, *Nineteenth Century Prints of Singapore*, 1990.)

싱가포르 화인주거가 말라카의 것과 다른 점은 일층 상업공간 앞쪽에 있는 개방식 연속 베란다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남부 지방과 말라카의 화인주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차양공간이 있지만 옆 건물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에 비해 싱가포르의 점포주택의 베란다는 직사광선과 계절우 등을 막기 위한 기후상의 차양공간 뿐 아니라 보도의 기능도 하고 있다.

래플즈가 개방식 연속 베란단을 규제했던 목적은 가로경관의 통일성(uniformity)과 상업지구의 점포주택에 가능한 많은 방을 확보하기(gaining as much room as possible)위함이었다.³⁶⁾

33) Letter of T. S. Raffles to Town Committee, C. B. Buckley, *An Anecdotal History of Old Times in Singapore*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84), pp.81-86.

34) Turnbull, Op. cit., p.20.

35) 화인거리의 건축규제 사항은 1822년의 2차 도시계획의 32개 조문 중에서 12조부터 18조까지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상현의 앞의 논문 pp.68-72를 참고하기 바란다.

36) Buckley, Op. cit., p.84.

래플즈는 연속하는 통로인 베란단의 열주(列柱), 벽돌식 건물에 기와 지붕의 통일된 재료, 규제된 도로의 등급과 점포주택의 폭 관계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화인거리에 통일된 가로 경관을 조성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방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 베란단의 위에는 실제로 예외 없이 방이 지어져 있다. 래플즈는 사유지인 베란단을 공공통로로 제정하는 것을 규제하였으나 그 위로 방을 짓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그로써 상업지구의 화인거리에 보다 많은 방을 확보하고자 했다.³⁷⁾

영국 식민지 정부는 효율적인 식민지 도시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 당시 여러 가지 도시 서비스, 상업, 사무소, 창고 등의 공간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많은 화인 노동자를 받아들일려고 하였던 식민지 정부에 있어 거주공간의 정비는 중요한 과제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말라카에 정착해 온 화인들과 중국남부지방에서 온 화인들의 교역과 상업활동을 위해 주거와 점포 또는 창고를 겸하는 화인주거는 자연스럽게 영국 식민지 도시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에 채용되어 정연한 화인거리의 건축군을 구성하게 되었다.

화인거리의 도시구조 특징은 가로와 도로의 설정인데, 상대적인 이점에 따라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등급을 나누었고 가능한 한 직행하도록 배치하였다. 가로 등급은 가로를 따라 열을 지어 집합화될 주거의 최소 공간을 정하는 것과 함께 각각의 가로에 면하는 주거의 수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각 주거가 점유하는 부지에는 그것이 면하는 가로의 등급에 따라 1달러, 2달러, 3달러의 일정 소액의 거주세가 결정된다.³⁸⁾

1832년 말라카, 페낭, 싱가포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하는 영국의 해협식민지가 건설되었고 1860년에 베이징 조약에 의해 청조는 화인의 이민 철폐를 해금하였다. 그리고 1869년 수에즈운하의 개통으로 유럽과의 접촉이 증대됨에 따라 화인 노동자가 계속 동남아시아에 각지에서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1880년부터 1900년 사이에는 15만 명의 화인이 상

37) (그림 2). 외에도 1840년대 T. J. Thomson이 그린 많은 회화에서 당시 화인거리의 주거 형태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Archives & Oral History Department, *Chinatown : An Album of a Singapore community* 牛車水 (Singapore : Times Books International, 1983), pp.14-16.

38) Buckley, Op. cit., p.84.

가포르로 이민 왔다. 화인 거리는 차츰 팽창하였고 건축기술의 발전과 유럽인 및 화인의 건축기술자의 증대로 인해 이전의 이층 규모의 화인주거는 3층으로 증축되었으며 화인주거 개발이 1880대부터 대규모로 행해졌다.³⁹⁾

20세기 초반에는 화인의 수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여 실제로 1907, 1909, 1911년에는 각각 22만 7천 명, 15만2천 명, 27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왔는데, 그 대부분은 노동자였으며 자신의 주거를 갖지 못하고 기존 화인주거의 일부를 겨우 임대할 수 있었다.⁴⁰⁾

화인주거는 많은 화인 노동자를 수용하였고 당시 유복했던 화인들은 환경이 악화된 화인거리를 벗어나 교외에 거주용의 로우하우스를 짓기 시작했다.⁴¹⁾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엄청난 인구과밀과 지가상승으로 인해 후천정(後天井 또는 rear court)에도 건물이 증축되어 위생상 주거 환경악화를 초래했고 화재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1907년대 이후 주거의 환경개선과 안전을 위해 후면 접근이 가능하고 오물을 처리 및 채광, 통풍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뒷골목(back lane)이 요구되었다.⁴²⁾

싱가포르의 화인주거는 건설초기에 새로운 면모의 도시로 계획하였으나 빠른 도시 성장으로 인한 인구과밀과 지가 상승의 경제적 요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성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수용한 이민정책 등이 화인주거 유형에 영향을 주었다.⁴³⁾

따라서 싱가포르 화인거리의 화인주거는 대가족을 위한 주거라기 보다는 핵가족이나 많은 남성의

독신자들을 위한 도시주거로서 말라카의 것보다 작은 규모이다.⁴⁴⁾



사진 2. 現 싱가포르 점포주택

화인주거의 폭은 일반적으로 5미터이며 가로에 면한 블록의 전체 폭은 22미터에서 330미터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에 있어 다양하다. 블록의 전형적인 크기는 65-80미터로서 16단위의 주거 폭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화인주거는 주간선 도로에서 뒤경계까지 20-30미터에 이른다. 규모는 주로 2-3층이지만 4층의 경우도 많다. 지붕위로 올라가는 경계벽이 각각의 주거 단위를 나누는 기준이다.⁴⁵⁾

싱가포르 화인주거의 공간구성은 비대칭적이며 유럽의 식민지 도시계획에 의해 획지(劃地)의 방위는 가로 경관에 의해 결정되었다. 말라카의 점포주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요구와 초기 무역업자들의 업무 기능의 요구에 의해 일층은 점포로 이용하고 이층은 가족의 거주용이다.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두드러진 특징은 천정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성을 들 수 있다.

중양의 천정은 내부에 빛을 제공하고 통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천정은 중국 전통주거의 중정과 달리 엄격히 중심 축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점포와 주거 부분을 구분하는 영역으로 존재하며 좁은 대지조건 내에서도 거실 또는 침실이 외기에 면할 수 있도록 주거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 틀림없다. 주거 공간은 집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욱 사적인 영역이 된다. 그 나머지 영역은 부엌과 화장실로서 주거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며 좁은 복도는 주요공간을 연결하는 회랑의

39) Jane Beamish & Jane Ferguson, *A history of Singapore Architecture The Making of a City*(Singapore : Graham Brash Ltd., 1985). pp. 67-71.

40) 黃俊銘, Op. cit., p.148.

41) 1920년대 싱가포르의 Bliar Road, Spottiswood Park Road, Neil Road, Emerald Hill, Saunders Road, Hullet Road 등의 주거지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개발되었다. Jane Beamish & Jane Ferguson, Op. cit., p.110.

42) 과밀한 주거환경은 영국식민지의 모든 도시들에 공통된 문제였는데, 1907년 영국에서 온 W. J. Simpson 교수의 조사에 의해 그 심각성이 인식되어 식민지 정부에 의해 뒷골목이 강제 집행되었다. Gretchen Liu, *Pastel Portraits*(Singapore : Singapore Coordinating Committee, 1984), p.47.

43) 1881년 당시 싱가포르 화인의 남녀 비율은 약 8 : 2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homas Tsu-wee Tan, Op. cit., p.61.

44) Robert Powell, *Living Legacy*(Singapore : Singapore Heritage Society, 1994), p.104.

45)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Chinatown : Historic Districts*(Singapore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1995), p.27.

역할을 한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행하는 조당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상업과 업무용의 점포 기능의 강화와 핵가족화의 결과로 그 역할이 점차 약화되어 없어지거나 점포의 칸막이 벽 앞에 제단(altar)을 두는 정도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객실은 거실이 그 기능을 대신하기도 한다.

싱가포르 화인주거는 경계벽(party wall)을 옆집과 공유하고 있는데, 중국남부의 전통주거와 말라카의 로우하우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주거의 양측면에서 지붕위로 돌출되어 있는 경계벽은 지붕을 지탱하는 구조 벽면인 동시에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fire wall)을 한다.

후천정(後天井 또는 rear court)은 건물의 후면(後面)에 있는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로서 기능적으로 부엌의 서비스 공간이면서 건물에 빛과 공기의 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

싱가포르의 화인주거는 식민지 정부에 의해 나누어진 대지 내에 적응해야 했으므로 비슷한 크기의 건물 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입면의 장식에 있어서는 당시 화인의 유럽 왕래나 유럽인 건축가의 출현 그리고 그에 영향을 받은 화인 목수들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변해갔다. 특히 유럽의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그리고 바로크 건축의 입면에 중국 요소와 말레이 요소를 절충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화인주거는 뚜렷한 건축 입면 양식이 없었으나 서구 문화와의 접촉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 화인 목수들이 서양의 건축 양식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화인주거의 다양한 입면 양식은 연대순으로 겹쳐있기도 하지만 경제적·기술적 상황, 건축주와 건설업자의 취향 그리고 유행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비록 주어진 도시구조의 조건 속에 말라카의 로우하우스보다는 축소형이지만 층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밀도에 대응하면서 천정을 중심으로 하는 말라카 로우하우스의 전통적인 공간구성을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입면의 양식은 서양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해 다양하게 변해갔다.

5. 화인주거의 확산

1832년에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말라카와 페낭을 연결하는 영국 해협식민지가 성립된 후, 하나의 네

트워크가 되어 화인은 각 도시 사이를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었으며, 화인의 대량이민에 의한 화인주택의 대량건설은 식민지 도시 싱가포르, 페낭, 말라카, 콰라룸푸르 등의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크기의 부지 정면 폭, 유사한 도시주거의 건축패턴과 건축 장식 그리고 개방식 연속 베란다는 공통된 면모의 화인거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였다.⁴⁶⁾

5-1. 페낭의 화인주거

영국의 페낭(Penang)섬 진출(1786년)과 도시 건설초기부터 화인은 페낭 무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많은 화인 주거들이 분포하고 있었다.⁴⁷⁾

페낭 건설 초기의 점포를 겸한 화인의 주거는 목재와 아담으로 지은 것이었으며, 이후 1789, 1808, 1812, 그리고 1826년의 대화재는 페낭 조지 타운(George town)의 절반을 태웠다. 요구되는 재건축은 벽돌과 기와를 사용하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행해졌다.⁴⁸⁾

1842년 아편전쟁으로 인한 난징조약의 체결에 의해 유럽세력의 중국진출과 화인 노동자의 대규모 해외 유출이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동남아시아 각지의 화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1860년대 접어들어 페낭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⁴⁹⁾

이 시기에 증가한 화인은 직인(職人)이나 농민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이미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화인과는 구별되어 신객(新客 : New Commer)이라고 불리었는데, 처음으로 식민지로 옮겨 온 그들은 썩 숙소나 직업 소개, 장사, 자본제공 등의 생활을 살펴줄 기관이 필요했으며 혈연, 방언,

46) 1870년 태국의 라마5세는 페낭과 싱가포르를 방문한 후, 근대화의 일환으로 방콕에 점포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는 중국남부의 香港, 廣州, 汕頭, 廈門 등지에 근대화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와 유사한 점포주택들이 대량 건설되었다. 泉田英雄, “シンガポール都市計劃 ショップハウス : 東南アジアの植民地都市とその建築様式の研究 その1,”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413号, 1990. 7., p.168.

47) Sharnia Hayes Hoyt, *Old Penang*(Singapore :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20~21.

48) Ken Yeang, 『The Architecture of Malaysia』(Kuala Lumpur, Malaysia : The Pepin Press, 1992), p.51.

49) 1860년에는 28,018대 59,956(1:2.1)이었다. Purcell, Op. cit., p.68.

지연, 직업 등의 관계에 의해 결합한 조직이 그러한 요구에 의해 생겨났다. 이렇게 확대된 화인 사회는 그 재무 구조가 세분화되고 다양한 조직의 건축과 거리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대량의 화인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형 주택인 점포주택을 많이 건설하였다. 현지주민들은 점포주택 건설에 필요한 직인(職人)을 중국 본토에서 고용했다. 그들은 화인의 점포 주택이나 종교건축을 건설하였고 유럽인의 주문도 맡았다. 1862년에 설립된 화인의 목수 조직 북성행(北城行)이나, 1864년에 창립된 화인 조직 노성행(魯城行)은 그 당시 활발한 건설활동을 하였다.⁵⁰⁾ 이것은 가로경관의 통일을 가져오는 일종의 재개발사업이라 하겠다.

싱가포르의 건축법의 영향을 받아 1887년 페낭의 신건축법(新建築法)은 내구성 재료의 벽돌과 기와를 사용한 건축 그리고 가로경관의 통일과 더불어 열대성 기후에 실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덮개가 있는 개방식 연속 베란다를 규정하게 된다.⁵¹⁾

19세기 초기 내구성 재료를 사용한 화인 점포주택의 특징은 독특한 입면으로 둔탁하고 장식의 거의 없는 기둥과 그 위에 보로 사용되는 5~6미터의 목재 길이가 입면의 폭을 결정했다. 일층과 이층에서는 채광과 환기를 위한 넓은 비늘창을 사용하였으며 점포의 전면은 상품을 전시하는 진열대와 작업공간을 위해 거리로 완전 개방되어 있었다. 이것은 페낭 건설초기 목구조와 아담 지붕을 한 점포주택들이 내구성 재료의 사용과 더불어 로우하우스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점포주택의 공간구성은 사회적 요구와 초기 무역업자들의 업무 기능의 요구에 의해 일층은 가게, 창고, 사무실로 이용되는 반면에 이층은 거주용으로 사용된다. 싱가포르의 경우에서처럼, 유럽의 식민지 도시계획에 의해 화인거리의 획지 방위는 가로경관에 의해 결정되었고 건물 배치는 좁은 부지의 폭으로 좌우대칭의 엄격한 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천정은 중심 축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공적인 영역인 점포 또는 창고와 사적인 영역인 주거 부분을 분리하면서 많은 방이 외기와 면할 수 있도록 주거 부분의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조당은 제단으로 대체되어 그 기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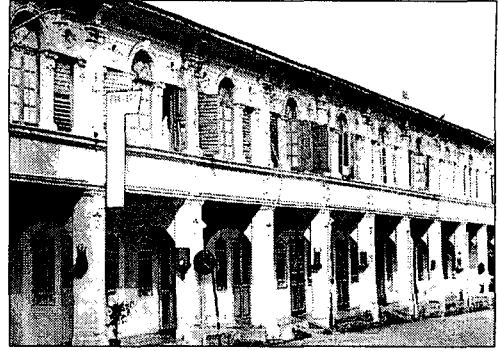


사진 3. 現 페낭의 점포주택

약화되었다. 일층의 높은 천정과와 천정을 면한 각실의 넓은 비늘창은 실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무더운 기후에 대처하고 있다.

페낭의 화인주거는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폭이 좁은 개방식 연속 베란다를 가진 입면과 2~3개의 천정을 중심으로 내향적 공간구성을 하면서 수직으로 층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밀도의 도시화에 적응해 나갔다.

5-2. 칼라룸푸르의 화인주거

칼라룸푸르(Kuala Lumpur)는 19세기 중엽 광산 도시로서 탄생하였다.

1879년 주석 광산의 경기가 상승함에 따라 칼라룸푸르의 지위가 점점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정부는 서말레이시아의 행정기구를 코란에서 칼라룸푸르로 옮기고, 칼라룸푸르를 스랑고르 주의 중심도시로 하였다. 1880년 이후 칼라룸푸르는 사실상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도시 건설 초기에 영국 식민지 정부의 더글라스(Douglas), 델리(Daly), 스웨텐햄(Swettenham), 맥스웰(Maxwell) 등의 역대 총독대리들을 통해 일련의 새로운 정책이 강구되었고 칼라룸푸르의 화인사회와 화인거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⁵²⁾

식민지정부는 1884년부터 페낭의 후찌엔계(福建系)화인과 그 밖의 중국출신의 화인들의 자본을 도입했다. 그 결과 후찌엔계(福建系)와 그 밖의 중국출신의 화인은 이전까지 화인 지도자(Capitan)인 葉亞萊(Yop Ah Loy)의⁵³⁾ 지배하에 독점되어 있던

50) 黃俊銘, Op. cit., p.133.

51) Ken Yeang, Op. cit., p.51.

52) 1880~95년 사이의 칼라룸푸르의 성장과 화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J. M. Gullick, *Kuala Lumpur 1880~1895* (Selangor : Pelanduk, 1988), pp.7~130을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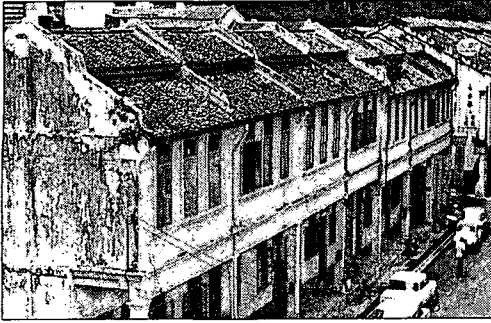


사진 4. 現 칼라룸푸르 점포주택

칼라룸푸르의 화인거리로 옮겨가기 시작했다.⁵⁴⁾

화인의 거리조성에 무엇보다 영향을 주었던 것은 1884년 9월에 발표되었던 신건축법(New Building Rule)이다. 1884년 이전의 칼라룸푸르의 건설은 거의 목조 아담 건물이었기 때문에 도시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처로 식민지 정부는 싱가포르와 페낭의 상업지구에 관한 건축규제를 참고하여 1884년 신건축법을 만들었다. 이 법령에 의해 새롭게 구축된 건물은 모두 벽돌 또는 흙벽을 사용하게 되었고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도시의 기존 건물도 개축하도록 요구되어졌다. 이 건축법을 기준하여 화인거리 중심지의 건물들은 신개축이 강제적으로 집행되었다.⁵⁵⁾

화인 葉亞萊는 이 법령에 준하여 칼라룸푸르에 최초로 벽돌과 기와를 사용한 점포주택을 건설하였고 새로운 화인거리의 개발을 시작하였다.⁵⁶⁾ 다른 해협식민지 싱가포르와 말라카의 화인거리에서처럼 칼라룸푸르 화인거리의 부지는 가늘고 길게 분할되었고 일층은 덮개가 있는 연속 배란다가 붙은 점포이며 이층은 거주용으로 하는 점포주택이 계속 건설되었다.⁵⁷⁾

부를 쌓은 화인 광부들과 무역업자들은 싱가포르에서 이미 익숙한 점포주택을 짓기 위해 화인 건설자와 목수들을 고용하였는데, 그들의 부와 위상

이 화려한 건축 입면에 반영되었다. 화려한 입면은 세기가 바뀔 무렵에 생긴 여러 문화의 충돌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데, 유럽문화에 의해 소개된 신고전주의나 팔라디언 양식 등의 유럽건축 요소들과 중국, 말레이의 것과 혼합한 장식을 포함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⁵⁸⁾

화인주거의 공간구조는 말라카와 싱가포르의 점포주택처럼 장방형(長方形) 대지에 두개 또는 세개의 천정을 중심으로 방을 배치하였으며 자연통풍이 원활하도록 일층의 천정고는 높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세장형 방의 깊음 곳까지 환기와 통풍이 될 수 있도록 고창형식의 잭루프(jack roof)를⁵⁹⁾ 설치하는 데, 싱가포르와 말라카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칼라룸푸르의 화인주거에는 매우 일반적이다.

일층의 큰길을 접하고 있는 부분은 상업 또는 공업공간이고, 뒷부분은 창고나 거주공간이다. 그리고 옥내는 천정(天井)을 중심으로 주로 이층에 거주공간을 두지만 이층의 전면은 업무기능을 하는 사무소를 두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방식 연속 배란다는 보도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붕위의 경계벽은 점포주택의 단위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페낭과 칼라룸푸르 점포주택의 공간구조는 천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말라카의 로우하우스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싱가포르와 같이 점포와 주거용도의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6. 화인주거의 문화적 전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각 도시의 화인주거는 유럽식민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영향아래 적응하였고 역으로 다른 지역의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화인주거에 영향을 준 외부적인 요인만으로는 화인의 사회 문화

54) 堀井健三, “クアラルンプール: 多人種都市の史的形成と展開,” 世界の大都市, 6, 1989, pp.246-247.

55) Gullick, Op. cit., p.12.

56) S. M. Middlebook & J. M. Gullick, *Yap Ah Loy (Kuala Lumpur: The Malayan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1983), pp.92-93.*

57) 법령을 실행한 1884년에는 벽돌로 만든 건물이 이미 200동이나 지어졌으며 1887년까지 칼라룸푸르에는 518동의 벽돌 건물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1889년에 남아 있던 아담 건물은 모두 철거되었다. J. M. Gullick, *Kuala Lumpur 1880~1895*, p.40.

53) 葉亞萊는 1837년 廣東省 惠川府 惠陽縣의 출신으로, 1854년 태평천국의 전란 때 고향을 떠나 서말레이시아로 왔다. 그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으며 1859년부터 같은 고향출신의 화인단체의 카피탄(商館長)인 盛明利의 유력한 간부가 되었다. 이후 1868년에 그는 그 집단의 카피탄의 지위를 승계 하였고 1885년까지 화인을 통솔하였다. J. M. Gullick, *Old Kuala Lumpur*,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6.

54) 堀井健三, “クアラルンプール: 多人種都市の史的形成と展開,” 世界の大都市, 6, 1989, pp.246-247.

55) Gullick, Op. cit., p.12.

56) S. M. Middlebook & J. M. Gullick, *Yap Ah Loy (Kuala*

적 적응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화인주거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러한 형상을 갖추게 되었고 그 건축적 작용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인의 모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동남아시아에서 화인건축의 사회 문화적 적응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6-1. 화인주거의 지리 문화적 배경

화인의 모국(母國)인 중국에서의 가로변 점포주택은 송대(宋代)이전에는 대체로 상업지구 안에 지정되어 있었다. 송대(960~1279)에 이르러 상업활동의 요구로 인해 이러한 제한이 깨어지게 되고 외향적인 가로변 상점건축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는 다층 건축형식으로 발전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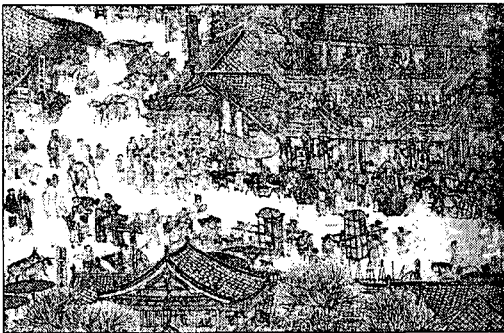


그림 3. 청명상하도 (자료 : 李允鈺 編, 『華夏意匠』, 1982.)

상업적 요구에 부합하는 상점건축은 이시기에 이르러 벌써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독립된 대형 주루(酒樓)와 상점 외에, 앞은 점포 뒤는 주거(前舖後居), 아래는 점포 위는 주거(下舖上居) 형식의 주택과 상업이 혼합된 점포주택이 보편적인 가로변 건축의 형식이 되었다.⁶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단순한 구조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재료인 목재와 아탑을 사용한 건축이 가장 초창기의 것이라고 가정해 보면, 1883

60) 점포의 먼은 길을 따라서 열려 있는 동시에 전체 건물군의 출입통로가 되었다. 점포 앞으로 비를 막는 천은 점점 발달하여 집밖으로 붙은 박자(拍子)라고 하는 단층 평지붕(나중에는 인도(人道)를 넘어선 기루(騎樓 : 보랑공간)이 되었다. 마당의 경우 가로변 건축에도 계속 존재하였으나 단지 뒤쪽으로 옮겨올 뿐 여전히 생활 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존속하고 있었다. 李允鈺 編, 『華夏意匠』, (香港 : 廣角鏡出版社 1982), pp.115-119.

년 이사벨라 버드(Isabella Bird)의 기록과 도해(圖解)는 초기 화인 건축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버드에 따르면, 화인은 페낭 무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많은 아탑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⁶¹⁾



그림 4. 화인의 아탑 주거 (자료 : David G. Khol, *Chinese Architecture in the Straits Settlements and Western Malay: Temples, Kongsis and Houses*, 1984.)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 구성 방식은 전면에는 점포 후면에는 주거 용도의 복합건축물의 군이 형성되었다. 점포는 거리를 향해 개방되어 있었으며 말레이시아 고상식 주거와는 달리 건물의 바닥은 지면위로 상승되어 있지 않고 거리의 높이에 맞추어져 있으며 박공 지붕의 형태도 고상식 주거와 다르다. 여기에서 화인의 가로변 건축은 오히려 중국의 가로변 건축의 공간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체의 오랜 역사를 지닌 점포주택은 광둥(廣東)이나 중국의 남부해안 지방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좁은 폭의 점포는 동일한 규모이며 이웃의 점포들과 벽을 공유하고 있다.⁶²⁾ (그림 5)

점포는 좁은 길을 따라 연결되어 있어서 진열대는 거리에 최대한 가까이 배치되었고 거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전시하고 장식해 놓았다. 거리에 접해 있는 점포들은 건축적 장식에 대한 배려보다는 수직으로 걸려 있는 간판이 더욱 강조되어 있고 가로는 석판(石板) 포장의 바닥으로 처리되어 계절우가 많은 지역에서의 배수와 통행에 유리하다. 지붕 사이에는 차양이 있어 뜨거운 남쪽의 태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하며 가로 폭의 협소함으로 점포열의 처마는 거의 맞닿아 있다. 여기에서 가로

61) Khol, Op. cit., p.178.

62) 현재까지도 중국남부 해안도시의 구시가지에 현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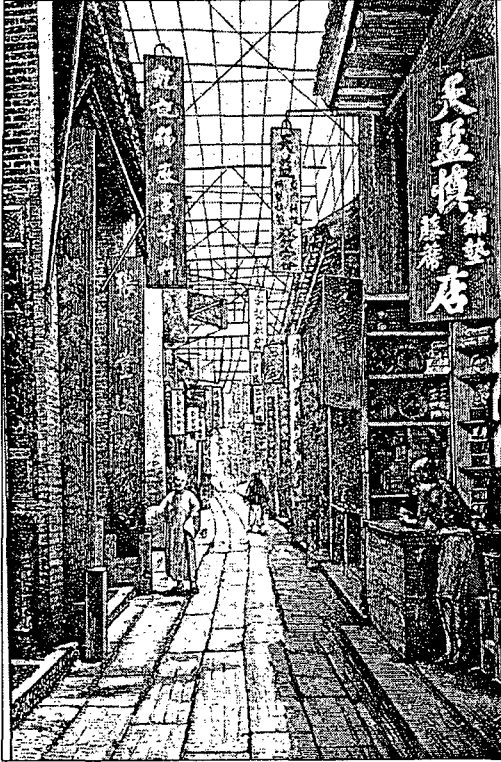


그림 5. 광둥의 점포주택 (자료 : 그림 4. 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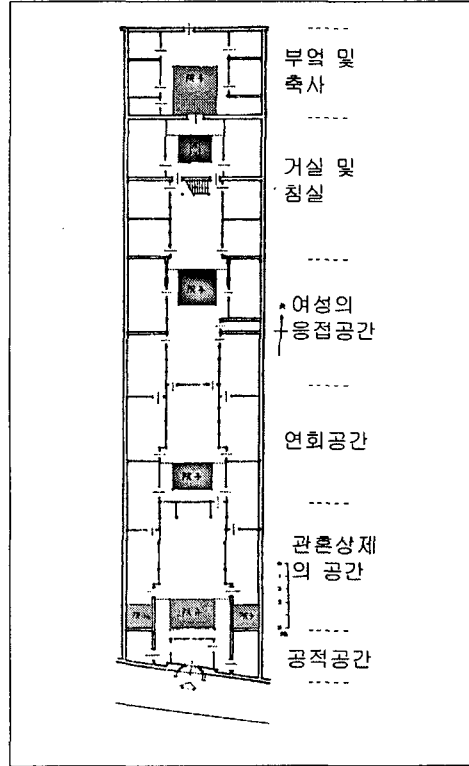


그림 6. 중국남부의 세장형 주거 (자료 : 劉敦楨, 「中國住宅概說」, 1957.)

구성 방식은 가계의 전면을 완전히 개방함으로 인해 거리의 공간감을 넓히고 상업활동 뿐 아니라 이웃과 다양한 활동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가 실제로 거리의 삶을 살아있게 하며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중국인의 관습이라 말할 수 있다.

광둥의 점포주택에서처럼 전면의 폭이 좁고 안길이가 긴 세장형 주거는 중국남부의 도시에서 대표적인 주거유형이라고 중국의 건축학자 劉敦楨은 설명하고 있다.⁶³⁾ 중국 福建省 上杭縣 城內 주택의 예에서, 전체의 평면은 중축선을 따라 좌우로 나뉘어 배치하였는데, 우선 가로면에 면하여 공적 공간을 두고, 두 번째 영역은 응접과 혼례, 장례 등의 의식을 행하는 용도, 세 번째 영역은 칸막이에 의해 전후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앞부분은 연회, 뒷부분은 여성들의 응접장소로 쓰인다. 네 번째 영역은 거실

과 침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안쪽의 천정(天井) 좌우는 부엌과 돼지우리, 닭장을 두었다. 이러한 세장형 도시 주거는 좁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였지만 안마당의 면적은 매우 좁으며, 대부분 채광이 불충분하고 환기도 좋지 않아 건물의 천정고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중국남부의 농촌에 있는 마을에서도 옆집과 벽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집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통로 형태의 마을들은 두 줄 또는 그 이상의 열로 지어진 주거들로 정렬되어 있고 주거열 사이는 좁은 골목길에 의해 서로 분리 또는 연결된다.

결국 중국남부지방에서 옆집과 벽을 공유하고 안길이가 긴 세장형 주거와 상업지구의 점포주택은 오랫동안 과도한 인구문제에 더해 혼란한 정국(政局)을 경험하면서도 생활상의 필요, 각종 자연조건이나 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적응하였다.

63) 劉敦楨, 「中國住宅概說」(北京: 乾縮工程出版社, 1957), pp.40-41.

6-2. 화인주거의 문화적 전통과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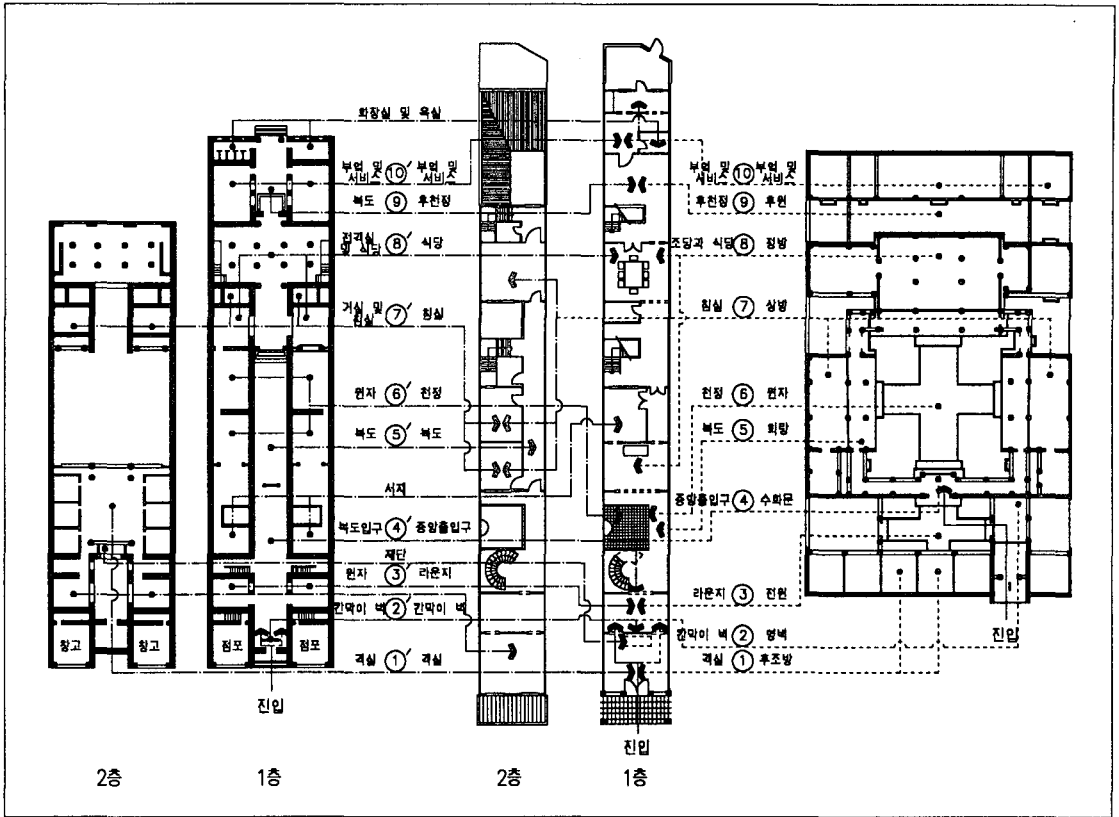


그림 7. 광둥의 상인주택, 말라카의 로우하우스 그리고 북경의 사합원의 공간구성 비교 (자료 : 左: Banister Fletcher, *A history of architecture*, 1975, 中: Urban Warisan Malaysia heritage of Malaysia Trust, *Malaysian Architectural Survey*, 1985, 右: 王其鈞, 「民間住宅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3에서 재편집)

동남아시아 화인이 모국인 중국에서 이주하였어도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문화적 유산으로 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적 전통(cultural tradition)은 화인의 문화양식을 의미한다.⁶⁴⁾

이러한 관점에서 명·청시대 이후 중국의 도시주거 유형의 모범이면서 중국의 합원식 주거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중정형 주거형식의 북경 사합원 주택⁶⁵⁾과 동남아시아 대부분 화인의 출생지이며 이민

경로 상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광둥에서의 상인주택 그리고 동남아시아 화인 주거를 대표하면서 주변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준 말라카의 로우 하우스를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공간구성방식을 비교 고찰해봄으로서 동남아시아 화인주거에 계승된 문화적 전통과 적응을 이해하고자 한다.

중국 북경의 사합원은 용어 자체가 네 동의 건물이 중정을 둘러싼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口자형의 공간구성이 기본이다. 배치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좌우 대칭성과 남북 중축의 축성에 있다. 대가족제도를 유지했던 중국에서 네 동의 건물 중 가장 안쪽에 있으면서 남쪽에 면하는 건물이 조부와 조모가 거주하는 정방(正房)이다. 동·서 좌우의 건물이 아들가족의 거주공간인 상방(廂房)이다. 그리고 길에 면하는 바깥쪽의 건물이 손님과 하인의 거처 그리고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도방(倒房) 또

64) 문화적 전통은 전통문화(傳統文化)와 그 의미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전통문화는 전통사회의 문화(cultural of traditional society)로서 현대에의 적합성을 이미 상실한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에만 적합했던 문화적 유산을 의미한다.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현암사, 1984), pp.6-7.
65) 중국의 사합원 주택의 기원은 주대(周代, 기원전1122-221)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이후 명, 청대에 일반화되어 지역별로 그 형식을 달리하며 전개된 결과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 발전 계통과 평면형식은 劉敦楨, 앞의 책, pp.23~53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는 도좌방(倒座房)이다. 이 중에서 정방(正房)이 가장 중요한 건물인데, 이곳은 주택에서 최연장자가 거처하는 곳인 동시에 가족의 거실로 사용되는 곳이며 또한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조당(祖堂)이 있는 곳으로서 주택의 상징적 중심이 되는 곳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이 사합원의 기본구성이다.⁶⁶⁾

사합원과 상인주택의 각 주거의 공간구성 요소들을 로우하우스와 비교하여 그 건축적 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좌방(倒座房) : 사합원의 경우 전원의 남쪽 가로변에 있는 건물이 도좌방인데, 손님용 숙소나 창고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대로변에 위치한 사합원의 경우 주택의 전면에 점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가로에 면하는 건물인 도좌방이 점포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⁶⁷⁾

상인주거의 경우에도 가로에 면하여 점포가 위치하고 있고 창고와 손님을 위한 객실(guest room)은 이층에 위치하고 있다.

말라카의 로우하우스의 경우에는 집의 가장 바깥쪽 가로변에 객실(sitting room)이 위치하여 손님을 맞아들이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를 겪는 동남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장사, 서비스활동, 노동력을 제공했던 화인이 주어진 대지 내에 로우 하우스의 객실을 점포로 변용(變容)하여 상업과 거주 일체의 복합건축으로 차츰 화인 거리의 가로변 건축군을 형성해 갔다.

② 영벽(影壁)⁶⁸⁾과 ③ 전원(前園) : 사합원의 경우 모든 주택에서 대문은 남동쪽 구석에 위치하고 대문을 들어서면, 벽체 즉 영벽을 바라보면서 서쪽으로 꺾고 좁고 긴 마당인 전원(前園)을 거쳐서 중앙부로 진입하는 방식이 적용된다.⁶⁹⁾ 대문을 들어

서면서 바라보이는 영벽은 외부세계와 가족의 생활 공간을 구분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실질적인 얼굴이 되는 중요한 벽면이다.

상인주택의 중앙입구와 말라카의 로우하우스의 객실을 지나면 영벽에 해당하는 칸막이 벽이 있다. 기능적으로 칸막이 벽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함과 동시에 차폐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진입방식에서도 객실을 지나면 영벽에 해당하는 칸막이 벽을 바라보면서 측면으로 꺾고 전원(前園)에 해당하는 라운지(Lounge)를 지나 주택의 중심부로 진입하게 된다.

④ 수화문(垂華門) : 사합원의 경우, 영벽의 중앙에 있는 문이 수화문으로서 방어와 안전 그리고 차폐기능을 하지만 관혼상제에만 사용되며 대문보다 더욱 중요시되는 곳이다. 원래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대문이 동남쪽 구석으로 옮겨지면서 그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대신 주택의 중축선상에 있는 수화문이 자리해 실질적인 입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회랑과 연결된 측면을 이용한다.

상인주택의 경우 중축선상의 중앙 복도를 통해 좌우에 배치된 공간으로 접근하게 된다.

로우하우스의 경우에도 라운지(lounge)를 지나면 중축선상에 있는 실질적인 입구를 통해 복도로 접근하게 된다.

⑤ 회랑 : 사합원의 경우, 각 건물의 전면에 회랑이 설치되어서 주택의 다른 공간을 연결한다. 유랑(游廊) 또는 주랑(走廊)이라고도 부르는 회랑은 송대 이후에 도입된 것인데, 건물의 전면에 설치됐으므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계하는 매개적인 성격을 지니는 공간이다. 회랑은 건물과 중정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주택의 각 공간을 기능적으로 연결한다.

상인주택과 로우 하우스의 경우, 복도(passage)는 천정을 면하고 있는 내부 공간들을 연계함과 동시에 방화복도로서의 역할도 한다.

⑥ 원자(院子)와 ⑦ 상방(廂房) : 사합원의 경우, 수화문을 들어서면 중정에 도달한다. 사합원에서 원자(院子)라 불리는 중정(中庭)은 주거공간의 핵이 되는 곳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가족의 생활공간이 배열된다. 여기에서 정방은 가족의 가장이 거주하

66) 필자가 이후에 서술하는 북경 사합원은 북경의 도시적 맥락이나 역사변천과 관련하여 건축구성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반의 주거 문화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사합원이라는 증명형 주택의 주거유형을 현상 그대로 공간구성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하 사합원에 관한 내용은 손세관, 「북경의 주택」(열화당, 1995)을 참고로 하였다.

67) 점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점포용 사합원과 주거용 사합원이 앞뒤로 연결된 전점후침형(前店後寢型) 복합 건축이 형성되기도 했다. 손세관, 같은 책, p.96.

68) 영벽은 사합원 대문에 마주하여 서있는 일종의 가림벽으로 진입부 시선 차폐가 그 기본기능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사악한 기운과 악귀를 물리치고자 하는 중국인의 관념이 물화(物化)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영어로는 spirit wa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69) 출입구를 동남쪽 또는 서북쪽에 두는 것이 길하다는 풍수

지리설의 원리가 북경에서는 철저히 적용되었다. 손세관, 앞의 책, p.65.

는 공간이며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사적 영역으로서 남쪽으로 면하고 있는 건물이다. 그 측면의 동, 서 방향에 있는 건물이 아들 가족이 거처하는 상방이 된다.

로우하우스의 경우에서도 중축선상의 실질적인 입구를 지나면, 원자(院子)에 해당하는 천정(air well)에 도달하게 되며 그 안쪽에는 천정을 면하고 있는 조당(ancestral hall)이 위치한다. 상방(廂房)에 해당하는 아들가족이 거처하는 곳은 이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좁은 대지의 폭에서 발생한 주거형식의 변화로서 수직으로의 공간확장을 통해 도시구조에 적응하고 있다.

⑧ 정방(正房) : 사합원의 당(堂)은 거실로서 가족의 모임장소이면서 동시에 가족이 식사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가장이 거처하는 건물, 즉 정방(正房)의 당(堂)은 조당(祖堂)으로서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일상적으로 접객과 식사를 위한 장소이지만 제사를 위시한 관혼상제의 장소로도 사용되는 곳으로 주택의 상징적 중심이 되는 곳이다.

상인주택의 경우에 조당은 위층의 가족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접객과 관혼상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일층에서 천정을 면하여 앞부분과 뒷부분 실들로 나뉘어져 있다. 앞부분은 연회가 이루어지고 뒷부분은 여성들의 응접장소로 쓰이고 있다. 더 안쪽으로 식사를 하는 식당이 분리되어 있다.

로우 하우스의 경우에서도 정방(正房)의 당(堂)에 해당하는 조당이 천정을 면하고 있으며 주택의 상징적 중심역할을 한다. 하지만 식사를 위한 식당(dining room)이나 서재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비교적 새로운 실에 해당하는 욕실의 출현은 서양문화와의 접촉과 도시화로 인해 공간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⑨ 후원(後院)과 ⑩ 부엌 및 서비스 공간 : 중규모 이상의 사합원 주택에는 정방의 후면에 또 하나의 길고 좁은 마당이 있는데, 이것은 후원(後院)으로서 여기에 면하는 건물이 후조방(後罩房) 또는 후조루(後罩樓)이다. 이곳은 미혼의 딸 또는 여자 하인들의 거처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곳에 부엌이나 가사용 작업실이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결국 이곳은 서비스를 위한 여성의 영역으로서 주택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이곳에는 호동

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는데, 서비스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부녀자들의 은밀한 출입이 행해지는 곳이었다.

상인주택은 후원에 해당하는 오픈 스페이스는 없지만 부엌, 욕실, 하인, 여성의 공간은 사합원의 경우에서처럼 주거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로우하우스의 경우, 후원(後院)에 해당하는 후천정(rear court)은 주택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엌이나 가사용 작업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뒷골목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다. 부엌은 건물의 가장 안쪽에 따로 위치하고 욕실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

⑪ 개구부 : 사합원내의 모든 건물은 중정을 향해 개구부가 형성되어 내향적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상인주택과 로우하우스의 경우에도 가로변에 면하고 있는 점포나 객실의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의 비늘창은 천정을 향한 내향적 공간구성을 하면서 채광과 통풍을 위한 개방성을 확보하고 있다.

⑫ 칸막이 벽 : 사합원 주택에서 방과 방사이의 공간적 구획은 벽들과 같은 무거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만든 경량 칸막이를 사용한다. 이것은 주택 내의 각 공간이 그 기능에 있어서 가변적이기 때문인데, 기능이 바뀔 경우 칸막이가 새로 설치되거나 또는 제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간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쉽게 짜 맞추거나 해체할 수는 융통성이 있다.

상인주택과 로우 하우스의 경우도 구조를 담당하는 양측의 경계벽을 제외하고는 쉽게 설치하고 제거될 수 있는 목재의 경량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하고 통합한다.

이상에서 각 공간구성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광둥의 상인주거와 말라카의 로우 하우스는 양쪽 모두 폭이 좁은 대지에 한정되어 있다. 전면의 객실 또는 점포 등은 공적 공간으로서 주거의 개인 영역으로부터 칸막이 벽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제사를 위한 공간, 중정 또는 천정, 관혼상제가 이루어지는 거실, 가족의 침실 그리고 부엌의 영역이 축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고밀도 주거환경, 경제적 요인 그리고 뜨거운 태양의 직접노출을 방지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후적 요인에 의해 중국남부와 동남아시아의 중정은 폭이 좁고 깊은 대지에서 작은 규모의 천정(air well)으로 축소되었다. 가로면에

면하여 로지아(loggia)나 아케이드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연광은 여전히 천정에 면한 방의 비늘창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들인다. 침실은 최대한의 가족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위층에 둔다. 이는 제한된 대지에 층수를 증가시켜 고밀도를 실현한 것으로서 대개 이층 주거이며 삼층 주거도 특이하지 않다. 하지만 로우 하우스의 경우에는 중국주거의 방위개념이나 엄격한 대칭성 및 축의 개념은 사라졌다.

사합원 주택과 상인주택은 앞에서 설명한 공간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지 조건이나 가족 구성과 경제 규모 등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말라카의 로우하우스 또한 좌우 대칭적인 공간구성이 식민지 정부의 도시계획과 가족 구성원 그리고 경제력 등에 의해 변형된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서구의 식민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상업과 서비스 활동을 제공했던 화인은 식민지 도시계획에 의해 좁고 긴 대지 내에 거주하여야 했고 로우하우스의 객실과 창고부분을 점포로 변용하여 상업과 거주 일체의 복합건축인 점포주택으로 화인거리의 가로변 건축군을 형성하여 적용해 나간 것이다.

7. 결론

이상에서 본 연구는 18세기 중엽에서 20세기초에 걸쳐 서구세력의 식민지 도시화와 문화변동 속에서 동남아시아 화인주거의 사회 문화적 적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이 지역에서 공통된 사항을 이끌어 내면, 서구의 동남아시아 진출과 식민지 도시의 건설에 따라 화인은 상업, 무역업 그리고 도시 서비스에 중요한 역할 담당하게 됨으로서 차츰 도심지 내에 밀집 거주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화인거리에서 화인주거는 거주용의 로우하우스 외에도 가로면에 면한 로우하우스의 객실이나 창고를 점포로 변용한 점포주택이 도심지의 대지조건 내에서 도시의 상업과 산업활동의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였고 공간의 수직 확장을 통한 고밀도를 실현함으로써 식민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구조와 급격한 도시화에 적응해 나갔다.

화인주거는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식민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새로운 규칙에 많은 영향을 받

았지만 천정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원리와 공간구성 방식은 모국의 문화적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 하나의 건축적 특징으로는 싱가포르의 건설자 스태포드 래플즈에 의해 규정된 개방식 연속 베란다의 출현을 들 수 있겠다. 서양문화가 동양문화권에 흡수된 이 규제는 가로경관의 통일성과 기후에 대한 실용적 대처로서 동남아시아 여러 도시들에 역으로 전파되어 근대화된 도시의 가로경관 꾸미기의 일환이 되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여러 도시의 화인주거는 유럽의 식민지 도시계획과 도시화, 중국남부 화인의 이민과 역할, 주택과 상업의 복합건축을 통한 도시 적용, 모국의 문화적 전통의 계승이라는 문맥에서 새로운 지역 건축의 문화로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대로 동남아시아 화인주거는 전통적으로 천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성을 계승하면서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거주성을 확보하고 상업과 주거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복합건축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있는 우리 나라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최소한의 질적 수준의 주거 환경여건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필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유형개발에 참조할 만하다.

참고문헌

1. 김성건, 「싱가포르 사회와 문화」, 문경출판사, 1997.
2. 김정동, 「하늘 아래 도시 땅위의 건축」, 가람기획, 1998.
3. 밀톤 W. 마이어, 「동남아시아 입문」, 김기택 譯,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1994.
4. 손세관, 「북경의 주택」, 열화당, 1995.
5. 이상현, 「동남아시아 화인촌의 형성과정 및 도시·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7.
6. 加藤祐三 編, 「アジアの都市と建築」, 東京: 鹿島出版會, 1987.
7. 泉田英雄, 「16世紀以降海洋アジアに於ける都市住居形成史序説」, 碩士學位論文, 筑波大學, 1987.
8. 黃俊銘, 「東南アジア及び日本における華人町の

- 形成史に關する研究,” 工學博士學位論文, 東京大學, 1990.
9. 泉田英雄, “シンガポール都市計劃 ショップハウス : 東南アジアの植民地都市とその建築様式の研究 その1,”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413号, 1990. 7.
10. 劉敦楨, 「中國住宅概説」, 北京 : 乾縮工程出版社, 1957.
11. 李允鈺 編, 「華夏意匠」, 香港 : 廣角鏡出版社, 1982.
12. Johannes Widodo, “The urban history of the southeast asian coastal cities,” 工學博士學位論文, 東京大學, 1995.
13. Badan Warisan, “Malaysia Heritage of Malaysia Trust”, *Malaysian Architectural Heritage Survey*, Kuala Lumpur, Malaysia : Badan Warisan Malaysia Heritage of Malaysia Trust, 1985.
14. Victor Purcell, *The Chinese in Malaya*, London : Oxford Univ. Press, 1948.
15. David G. Khol, *Chinese Architecture in the Straits Settlements and Western Malay: Temples, Kongsis and Houses*, Kuala Lumpur :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1984.
16. Thomas Tsu-wee Tan, *Your Chinese roots*, Singapore : Heinen, 1986.
17. Ken Yeang, *The Architecture of Malaysia*, Kuala Lumpur, Malaysia : The Pepin Press, 1992.
18. Khoo Joo Ee, *The Striats Chinese : A Cultural History*, Singapore : The Pepin Press, 1996.
19. Sarnia Hayes Hoyt, *Old Malacca*, Kuala Lumpur :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20. C. B. Buckley, *An Anecdotal History of Old Times in Singapore*,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84.
21. Gretchen Liu, *Pastel Portraits*, Singapore : Singapore Coordinating Committee, 1984.
22. Jane Beamish & Jane Ferguson, *A history of Singapore Architecture*, Singapore : Graham Brash Ltd., 1985.
23. C. M. Turnbull, *A History of Singapore 1819-1988*, Singapore :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24. Jon S. H. Lim, “The Origin of the Singapore Shophouse,” *Architecture Journal*, vol.2, 1990.
25. Robert Powell, *Living Legacy*, Singapore : Singapore Heritage Society, 1994.
26.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Chinatown : Historic Districts*, Singapore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1995.
27. Sharnia Hayes Hoyt, *Old Penang*, Singapore :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28. J. M. Gullick, *Kuala Lumpur 1880~1895*, Selangor : Pelanduk, 1988.
29. J. M. Gullick, *Old Kuala Lumpur*, Singapore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A Study on Chinese Southeast Asian housing

-Cases in Malaysia and Singapore-

Lee, Sang Hyun

(Graduate Student, Sung Kyun Kwan University)

Yoon, In Suk

(Associate Professor, Sung Kyun Kwan University)

Abstract

The region of Southeast Asia had already experienced rapid urbanization and cultural change before the East Asia region did. None the less, nowadays shophouses and rowhouses still form the major portion of streets in Chinese town in Southeast Asia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daptation process of shophouse and rowhouse in the Southeast Asia region 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middle of 18th and the early of 20th, which Chinese people of the region inherit and develop, for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cultural adaptability and regionalism of Chinese architecture in Southeast Asia.

The common fact found in the Southeast Asia region is that Chinese people in countries of this region gradually started to live densely as a group in a certain zone in city area since they got to play important roles in commerce, trade and service works related with cities, due to European countries' advance into Southeast Asia and their construction of colonial cities in the region.

Chinese people in the region utilized residential rowhouse and special shophouse, which is a kind of shop adapted from rowhouses' sitting room or storage, for their commercial and industrial activities in urban areas, which had problems of limited space. They also realized high densities through vertical expansion of space in order to adjust to changing urban structure under execution of urban planning in cities of colonial area and rapid urbanization. Even though residence of Chinese in Southeast Asia was influenced by new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ules of European colonies in Southeast Asia, it has continuously succeeded to the cultural tradition of China, their home country, in terms of planning principle which puts air well in the middle and hierarchial spacial construction method.

Appearance of the open connected verandah, designed by Stamford Raffles, the founder of Singapore,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architectural characters.

Hence, Chinese residence in cities of Southeast Asia can be understood as a new regional architectural culture in the context of European countries' urban planning and urbanization of colonial areas, immigrants from southern China and their role, their adjustment to urban areas by utilizing mixed type houses of residence and business, cultural tradition of Chinese home country.